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日)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中等學校의增設

一

吾人은 本欄을通하야 中等程度學校의 增設과 및擴充에 對하야 累次言及하엿고 併하야그 增設과 擴充이 現下朝鮮의 實情에 비치어보아서 가장 焦眉의 急務인것을 主張하엿다. 따라서 오늘날 다시 새삼스러히 이問題에 對하여서 論評할 必要도 업는바이다 그러나 問題가 問題인만치 다시금 한번 그必要性과 및實際性을 檢討하여보고 兼하여 當局에서 施行하려고하는 中等敎育機關擴張計畫이라고 世間에 傳하는바에 對하야 論及하여 보고저하는바이다. 元來問題가 浩大하고 또影響도 甚大할것이므로 이것을 全面的으로 詳論하기는 到底히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爲先當面한 重要한것을 論及하여보고저하는바이다.

二

中等學校의增設이 必要하다는것은 길게 探說할必要도 업시 每年入學時期를 當하면 中等學校入學者의 數가 入學志願者의五分之一 乃至 十五分之一이라는 놀라운 事實이라던지 또는 이中等學校入學問題를 가지고 全朝鮮社會가 憂慮와 焦燥에 차이여서 千態萬態의 喜悲劇을 演出할뿐아니라 入學受驗生을 가진家庭에서는 宛然 戰爭氣分을 現出하는것으로만 보더래도 넉넉히 알수가잇는것이다. 그러나 實際數字로보면 昭和十一年五月末現在로 全朝鮮公私立普通學校 最終學年在學兒童數가 男女를合하야 十四萬六千八百七十六名이엿슴으로이것의 最少限度五分之一이 上級學校에 入學試驗을 본다고 하여도 七千二十餘名의 受驗生이 나게된다 그런데昭和十一年五月末現在 全朝鮮中學程度學校의 學級數는 高普와 農、商、工、實業等을 合하여서 겨우 五百二十五學級이엿슴으로 平均一學級에 最大限度六十名을 드린다고 하여도 三千百十五名바게는 入學이되지못하게된다 그러므로 入學때가되면 入學難을 부르지지는것은 當然한것이다。

三

今年四月부터 實施된 初等敎育擴充案으로 因하야 五年後에 初等學校의 卒業者數는 現在보다 倍以上 增加할것이므로 中等學校의 增設과擴張은 絶對로 必要하고 또焦眉의 急務인것은 긴말할것도 업다 當局에서이에 對應하기爲하야 昭和十四年度부터 昭和十七年度까지 四個年동안에 各道에 中等學校增設과 및 學級增設計畫을 發表하엿는데 그것에 依하여보면 新設과 및旣設을 合하야 七百學級이라고한다 그리고 京畿道에서는 이것에 依據하여서 四個年間에 約百學級을 增設하겟다한다 此種計畫에 贊意를 表함은勿論이다 그러나 이것은 商、農、水、其他實業의中等學校를 除外한 數字이겟지만어쨋든 이七百學級의 增設은 實際에 비처서 넘우도 적은數字라고 아니할수가업다。

四

우에서도 말한바와가티 擴張되는 初等敎育에 依하야 普通學校卒業生數의 最少限度五%가 受驗을 한다고하여도 이七百學級에收容할 數와 [illegible]는 數字上으로 벌써 뚜렷이 나타나게된다。그러므로 農、商、工其他實業學校가 增設된다고하여도 到底히 入學志願者數의 二分之一도 收容키어려울 形勢에

徐州攻略本格戰展開
我戰車隊大學突進
徐州까지距離僅廿里
前線要塞陣地崩壞乎

【北京十四日發同盟】我北進部隊의 碭山附近의 隴海線爆破와 大黃河渡河軍의 進出은 徐州作戰의 成功的完結을 示할것으로 徐州大會戰은 마침내 마흔戰果를 獲得할 本格的段階에 入한것으로 觀測된다 即台兒莊附近戰鬪에서 李宗仁軍은 執拗하게 反擊을 反復하야 同方面의 戰線에만 拘泥하고 마침내 大局을 그릇하야 헛되히 大軍을膠着시키여 荏苒徒日하고잇는 模樣이다 其間 我軍은 台兒莊韓莊方面으로부터 徐州進擊의 態勢를 取하야 黃河渡河의 準備가 進捗하는 同時에 我北進軍에 相應하게 布陣하고 安徽、河南省境方面의 敵의 退路遮斷의 陣形作戰에 成功하야 黃河의 南北一齊히 行動을 開始하고저 北進快速部隊의 迅雷眼을 더할사이도업시 西部戰線碭山附近의 隴海線切斷을 敢行하고 한 敵이 想像하는것과달리 歸德附近의 黃河를 勇躍、渡河、山東의 西南境에 進入하야 決河와가튼 勢力으로 隴海線을 目標로 殺到하야 重包圍陣形을 完成하게되엿다 또蘭陽、考城兩黃河部隊는 地上部隊의 作戰에 協力하야 徐州、歸德、蘭封、宿縣等의 敵陣地의 [illegible]을 爆擊하야 敵의 軍事的中心을 破壞하야 敵을 啞然케하엿다 이리하야 碭山、以東海州에 至하는 蜿蜒八十里의 隴海線沿線에 展開한 龐炳勳、于學忠、孫連仲、張自忠、湯恩伯、鄧錫侯等抗日軍四十萬의 運命은 바야흐로 風前燈火로되엿다 又關麟徵、封耐州等의 西部戰線上에 蟠居한 程潛、劉峙指揮의 三十萬의 兵力도 意氣衝天한 我軍의 攻擊에 抗할수업서 敵의 抗日軍事據點의 潰滅은 바야흐로 目睫之間에 切迫되엿다

【〇〇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 岩仲戰車隊의 隴海線切斷과 前後하야 我北進部隊의 〇〇部隊는 二十里(八十키로)地點에 進出하야 徐州에向하야 決河와가튼 勢力으로 進擊하고잇는데 十四日午後六時現在 徐州에의 距離는 겨우 二十里박게 남지안엇다

【〇〇十四日發同盟】我神速한 北進作戰에 依하야 徐州西側交通路를 遮斷된敵은 말할수업는 混亂에 陷入하야 目下我〇〇部隊正面에는 二十九軍及劉汝明이 指揮하는 二個師가 河南、江蘇省境에 布陣되여 徐州攻擊을 阻止하고잇스나 [illegible]我軍의 重壓을 [illegible]고 陣地를버리고 徐州方面에 潰走를 開始한듯하야 西方의 徐州要塞의 最前線陣地는 不得已 崩壞하게되엿다

敵戰線敗退로
支那大本營大動搖

【上海十五日發同盟】徐州戰線의 敗戰의 顚末은 連日漢口에 報來되여 支那側大本營은 恐怖과 焦燥中에 事態의 推移를 觀望하고잇는 模樣인데 情報에依하면 蔣介石은 李宗仁에게對하야 麾下將兵을 督勵하고 現在地에잇서서 徐州를 死守하라고 督勵電을 發하엿다한다 歡樂만을 일삼는 將校도 敗北의事實에對하야 어절지몰으고 다만 헛되히 逃避戰의勝利를 逆宣傳함이로 當慌한비치보인다

虛組織과系統을잃리한 徐州의 軍이 果然蔣介石及李宗仁의 命에服從하야 死守할지 가장疑問되여 國民政府及李宗仁麾下將領間의關係는 徐州의陷落을 目前에두고 微妙한關係를나타나게되엿다

敵前渡河成功

【石家莊十四日發同盟】我〇〇部隊가 大規模的 敵前渡河에 成功한것은 事前에 我方의行動을 全然 秘密히 할수잇는것과 各部隊가 山東에 轉戰할때의 氣配를 示하엿기 때문인데 敵은 이에 乘하는바 되여 四月中旬頃부터 逐次 隴海線〇〇一帶에잇는 兵力의 大部分을 徐州方面에 大移動하야 同方面에 對한 戒心과 警戒를 忘閑하야 한것으로 敵은 敵의想像하엿던 我行動에 對하야 狼狽하고 全線에 大動搖를 招來하고잇는데 이意外의 大衝擊은 全然 敵에對하야 全戰線을 支配하는 大打擊이 으로보인다

聯盟理事會終了
對支同情的決議採擇코

【쥬네브十四日發同盟】聯盟理事會는 十四日午後四時로스헬議長司會下에 十五個國代表出席下에 公開會議를 開하고 日程에따라 瑞西의 嚴正中立復歸 智利代表의 聯盟規約改正案 日支紛爭에 關한 理事會決議案의 審議에入하엿다 會議는 먼저午前의特別委員會에서 採擇된瑞西에對한 聯盟規約第十六條의 義務免除案은 表決에 附한結果 蘇聯支那兩代表의 棄權을 除하고 全會一致로 이를採擇 瑞西는 玆에嚴正中立의 立場을 確保케되엿다 다음智利의聯盟規約改正의 審議에 入하엿는데 智利代表에드와드博士는 聯盟機構의 不振을 指摘하야 聯盟의反省을 促하기爲하야 二個年의 豫告期間을두어 聯盟을脫退한다고聲明하야 聯盟의 將來에 暗影을 던젓다 智利代表는 退場하엿다 理事會는 다음 支那代表의 提案에 依한 日支紛爭에 關한 決議案을 上程하엿는데 波蘭代表코마르닛치氏는 第一部對支同情表明 第二部毒瓦斯使用否認의 決議中 第一部에만 贊成한다는 意見을表明하엿고 다음佛國代表보네外相은 議案에 贊成한後 支那政府와國民의抗日戰은 英雄的이라고 이를 賞揚하고 또佛國도 上海의避難民保護에當하고잇다고 述하엿고 다음英國代表 할리팍스外相은「英國은 理事會의決議에 基하야 支那의要求에對하야 誠心으로考慮할것이다」라고 表明하야 決議案支持를 表明하엿는데

毒瓦斯使用非難決議

【쥬네브十四日發同盟】聯盟理事會는 十四日午後公開會議에서 十三日夜半 特別起草委員會에서作成한 對支同情毒瓦斯使用非難決議案을表決에附한結果 同案을全會一致로 採擇하엿다 但波蘭代表는 決議案의第二部만 投票하고 第一部에서 反對意見을留保하엿다 決議案의要旨는如左하다

◆第一部 聯盟理事會는 聯盟이總會理事會決議의勸告를 實效的으로하기爲하야 最善을다하고 또右決議에基하야 支那의 要請에 眞劍한 同情的 考慮를하도록 要請한다 支那가 日本의 侵略行爲에對하야 獨立領土保全에努力하는 事實과 支那國民의 困窮에對하야 同情의 意를表한다

◆第二部 毒瓦斯使用은 國際法의 禁止하는바로 그使用은 世界文明의 反對를 바들것이다 各國政府로서는 本件에關하야 情報를 어든境遇에는 聯盟에通報하도록 要請한다

海軍記念日式典
廿七日朝鮮神宮서

事變下에마지한 來二十七日의 第三十三回海軍記念日에 際하야 海軍協會朝鮮本部 鄕軍海軍部及京城府에서는 合同主催下에 當日午前八時부터 朝鮮神宮大前에서 記念式典을 擧行하게되엿다 南總督 大野政務總監以下軍官民多數參列하야 大野政務總監이 日本海軍大勝에際하야 賜하옵신 勅語를奉讀하고 이에對한東鄕提督의奉答文을 故元帥의令息인東鄕總督府海軍御用掛가 朗讀하야 一層式典의意義를깁피하게되엿다 또當日午後八時부터는 長谷川町公會堂에서 海軍要港部 鎭海警備隊에서 令安艦榮城大佐의「事變下에 海軍記念日을 마지하야」라고題한 講演會가 開催될터이다

智利政府
聯盟脫退聲明

【쥬네브十四日發同盟】智利代表아구스틴·에드와-드博士는 十四日午後聯盟理事會에서 智利政府는 今後二年間의 豫告期間으로서 聯盟을 脫退할것을 聲明하엿다

敵의命令系統
大混亂狀態

【〇〇基地十四日發同盟】我爆擊隊는 十四日拂曉大擧徐州를 突破하고 徐州를 急襲하야 城內東側에 잇는 電信局의 大建築物을 目標로 果敢한 爆擊을 敢行하고 이를 粉碎하야 多大한 打擊을與하엿다 右電信局은 徐州戰線의 支那軍의 重要한 戰略的 命令系統의 中樞가되는것으로 徐州의 支那軍 首腦幹部는모두 同建築物內에잇서서 各戰線에命令을 發하고잇섯슴으로 今朝의 我爆擊으로 敵의戰略的命令系統은 完全히 破壞되엿다

西南에血路를열고
徐州一部敵退却開始
街路上에雲霞가티敗走하는敵兵에게
陸軍飛行隊가殲滅的爆擊

【〇〇에서同盟特派員十四日發】隴海線의切斷과 我大進擊에 士氣沮喪된 徐州附近의敵一部는 西南部에 血路를열고 退却을 開始하엿스므로 我陸軍飛行隊前田上田田中各部隊는 〇〇基地를 出發 再次徐州附近에 나타나 街道上에 雲霞가티 敗走하는敵大集團을 目標로 機銃으로 掃射하야 殲滅的打擊을 與하엿다

【濟城十五日發同盟】〇〇部隊는 沂河西方地區로부터 台兒莊東方 運河右岸에 亘한 사이의 重要要地를占據하고 敵과對峙하고잇는바 十五日今野部隊의 決死的攻擊에 依하야 同五時艮山을 占領하고 繼續하야 殘敵占領의敵을 追擊中이다 또〇〇部隊의 前面에 頑强抵抗하고잇는 敵은 南方에 總退却을 開始하엿다

劉汝明軍後退

【丁集十四日發同盟】十三日永城을 무찌른 我北上〇〇部隊는바야흐로 徐州로 向하야 進擊을 開始하야 十四日午後六時碭山東南方魚山線에 肉迫하야 目下徐州로부터南下한 第二十九軍의 劉汝明軍과 激戰中인데 敵은 我猛攻에 견디지못하고 漸次後退하고잇다

今日本紙四面

國府昆明再遷都
漢口守護困難으로
駐支外國大使도勸告

【上海十四日發同盟】徐州會戰에 잇서서 我軍의戰果가 驚異的으로 擴大되매 따라 바야흐로 蔣介石政權의動脈인 隴海線의 切斷도 目睫에 迫到되여 徐州陷落은 全然 손을 꼽아 기다릴뿐으로되엿는바 國民政府는 徐州가陷落되면 漢口는 守護키難하다하야 過般來 秘密히 四川省重慶에 一切의 政府機關을 移轉코저 航空委員會、兵工廠、經濟部及各種機關工場의 移轉準備를 行하고잇는데 刻刻으로 戰況의不利와反復하는 我空軍의間斷업는 爆擊은 今後에도 重慶을 [illegible]할것이라하야 只今부터 戰戰兢兢하고잇다 그런대 四川의反中央派는 依然엇지안코 오히려再燃의氣勢를 보이게되엿슴으로 重慶亦是 安定의 地가되지못한다는意見이 政府首腦部間에 이러나게되여 重慶에比하야 水陸의交通이 便한 雲南省昆明으로 政府를移轉하기로되엿다 昆明은 最近貴州、緬甸을連結하는 新自動車路가잇스며 다시佛領印度支那에 通하는 鐵道도잇서서 武器輸入에는 가장便利한바 게다가더욱 最近에建設된 昆明의大飛行場까지잇슴으로 國民政府最後의 逃避地로 昆明을가장 有力하게하엿는데 一部駐支外國大使等은 모르지이 昆明으로移轉하라고 國民政府에 勸告하고잇다고한다

百善을完全占據

【〇〇十四日松尾細波同盟特派員發】十三日夜月光을 利用하야 勇躍進擊을開始한 〇〇部隊는 同夜半夜襲을 敢行하야 劉庄의敵陣을 突入 壯烈한 肉彈戰을 展開한後 거의 敵을殲滅하고 即時 午前四時半 天明과同時에 百善에 肉迫하야 南門으로부터 一擧에突入 敵의 [illegible]하야午前五時二十分 完全히 이를 占據하고 旭光에 빗나는 感激의 日章旗를 바라보면서 將兵一同은 萬歲를 絶叫하엿다

燒酎의大王
英月 月仙 票
年釀造高八万石

八面鋒

◇墨西哥와 英國과의 國交斷絶。

◇石油問題로 싸홈?

◇米國 海軍大擴充案은 上下兩院을 逆通過。

◇이것은 公然히 軍擴을 하는것。發表업시 하는 나라들의軍擴狀況은 大槪 如何?

◇物價는 날로 暴騰。昨年同期에 比하야 騰寸의 十二割을 비롯하야。

◇牛皮六割餘、玉洋木 五割七分、石炭 四割九分、木材 三割八分、大麥 三割餘、松薪 三割餘、再製鹽 二割八分、綿絲 二割餘、其他 안오른것이 末有。

◇給料生活者의 苦難을 想像。企業者、當局者의 考慮할點。

臺灣在米高
七十五萬餘石

【臺北同盟】臺灣總督府發表 五月一日現在의 臺灣在米高는 七十五萬二千四百六十一石으로 前年同期에比較하면 九萬一千八百八十五石(一割一分一厘五毛)의 減少이다

隴海線鐵橋爆破
東部隴海線完全遮斷

【單城十五日發同盟】和田工兵部隊의 一部井上決死隊는 十四日午前九時二十分 久能戰車隊掩護下에 敵彈雨中에 敵中을 突破하야 隴海線의一要衝 新安鎭 瓦窰(新安鎭西方二里)間의 鐵橋를 爆破하고 一部는沿線의通信網을 切斷하야 連絡不絶에 陷入케하야 敵의 大動脈인 東部隴海線을 [illegible]、完全히 隴海線을 遮斷하엿다

北湧溝、南道口占領

【單城十五日發同盟】山田部隊는 十四日午前六時부터 北湧溝(碭縣東方四里)를攻擊하야 同八時頃에는 이를占領하고 繼續南道口를 攻擊하야 十五日午前四時頃 占領하고 抵抗하는敵을擊破하야 同地도 占領하고 또南方으로向하야 追擊中이다

金鄕占領

【〇〇十四日發同盟】山東省最南端을 南下中인 我部隊는 十四日午後四時지나 敵의 重要據點인 金鄕을 占據하엿다

南進部隊도
隴海線遮斷

【北京十五日發同盟】十五日午前十時四十分 軍司令部發表 昨十四日午前九時 我軍最左翼方面部隊는 新安鎭附近에서 또 黃河部隊의 快速部隊는 十四日夜 蘭封東方約三里門寶附近에서 鐵道及電線數個所를 爆破하엿다

本社參觀 (十四日)

開城郡嶺北公立尋常小學校 郞完燮氏引率下三十五名

日曜氣配

▲株式 前日一巡과 利喰賣으로 伸惱나 戰局展開待로 高値含으로 氣配少堅 大新八六三〇 東新一五三三〇 鐘紡二六〇九〇 滿鐵八四五〇

▲期米 消費增加와 環境良好로 押目買氣强하야 新材料待로 强含氣配少堅 氣配二十錢가량

續續黃河渡河

【石家莊十四日發同盟】十一日夜〇〇部隊의 〇〇의 渡河에 繼續하야 大黃河에는 一夜동안에 完全히 軍橋가 架設되여 十二日夜부터 新鋭大部隊는 續續渡橋中인데 〇〇、〇〇方面에서도 十三日夜부터 〇〇、〇〇部隊가 渡河하야 十四日早曉까지는 各前岸에 有力한地點을 獲得하고 또大部隊가 續續하야 渡河中이다

黃河渡河戰에
戰死八名

【北京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四時軍司令部發表 黃河渡河作戰에 我軍損害는 戰死八名이다

世界週史

徐州運命風前燈火

四十萬大兵을 擁한敵은 李宗仁을 [illegible]命令으로하고 抵抗하고잇는데 我軍은 一方南下하야 前面으로 이를脇迫하고 또揚子江方面으로北上한 急速部隊도 이어 隴海線에 到達하야 江蘇 安徽 河南을連結하는 [illegible] 南北兩面에 [illegible]되어 徐州의 運命은 바야흐로 風前燈火의 運命에잇다

廈門敵前上陸

今月十日 海軍은 有力한 部隊로 廈門에 上陸하야 [illegible]의 援護와 空軍의 [illegible]助下에 完全히 占領하엿다

獨國、滿洲國承認

獨逸政府는 十二日午前 獨逸外務省에서 滿洲國代表加藤同占氏와 外務次官바이쓰만氏間에 獨滿修交條約을 正式調印하엿는데 이것으로 獨國은 正式으로 滿洲國을 承認하엿다

米、太平洋防備強化

米國政府는 米國의 太平洋防備의 完璧을 期하기爲하야 알라스카의 덧치하-버를 爲始하야 南太平洋上의 미드웨이、웨-크、칸톤、파고파고等 各島嶼에 强大한潛水艦前進根據地를 築設하야 太平洋의 防備陣을 强化코저 決定하고 着着 施設을 擴大强化하야 外國飛行機의 來侵使用에 關한 英米交涉도 圓滿히 進行되고잇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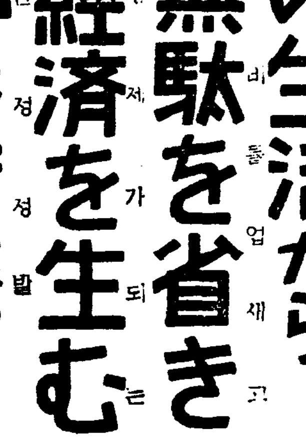
米빈손案可決

米國下院은 去九日 빈손海軍擴張案을 通過한 [illegible]

伯國又復쿠데타

U・P・모레비데오支局十一日報道에依하면 伯國首都리오·데·자네이로府에서는 일직부터 政府의 不平을 품고 不穩한氣勢를보이던 인테그라리스트黨에 屬하는 따니急進分子가 叛亂을 이르키여 大混亂에 陷入하엿는데 急遽히 軍隊가 달려와 無事하게 鎭壓되엿스나 아직도空氣는不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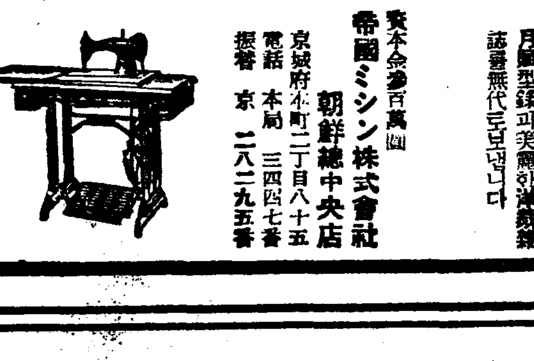
金鶴香油
金鶴으로調髮하거


丹頂チック
파리-製보다優秀한
忙しい近代人の生活から無駄を省き經濟を生む丹頂整髮!
丹頂へヤートリンメント 丹頂チック

專門卸問屋
夏物品揃
小兒服
店內陳列、參觀歡迎
合名會社 梨木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心才橋筋

ステッキ パイプ 卸商
井村友三郎商店
大阪市東區北久太郎町四丁目心齋橋筋

結核 免疫元 (AO)
AO應用의現況及世界各國에서의認識
AO의特長
AO의適應症
發賣元 須美商店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四〇番地

國産 蛇の目ミシン 月賦
★一家에一臺
★蛇の目ミシン
★이優秀無比한

資本金參百萬圓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中央店
京城府本町二丁目八十五
電話 本局 三四四七番
振替 京 二八二九五番

全朝鮮學校運動場을 民間團體用에 開放

時間後, 日曜, 祝祭日에 限해

校長의 自由裁量으로 容許

비상시국의 국민체위(體位)향상은 현하전세상 중대시국하한 문제라하야 문부성(文部省)에서는 내지소학교로부터 대학까지의 학교운동장을 일반민간 「스포—쓰」애호가에 개방하기로 되엇는데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이점에대하야 일찌기 신중고려중이던바 일반의 공중도덕 또는 학교의 용인(傭人)사용관계 기타여러가지로 보아 지금 곳 구체적으로 이것을 개방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나 일반국민체위향상에 대한 대국적 견지로 보아 전연폐쇄하는것도 타당치안흠으로 따로 학무국으로서 획일적방침을 결정치안코 개인이 아닌 각단체가 책임자를 정하야 학과시간후 또는 일요, 축제일에 한하야 각학교 교장에게 운동장사용을 신청하는경우에 학교교장의 자유재량으로써 이것을 개방할수잇도록 되엇는데 남녀청소년단체, 회사, 은행, 공장 동 책임잇는단체에는 학교운동장의 개방을 환영할 방침이다 그런즉 실상에잇서서 조선도소학교로부터 대학까지의 학교운동장을 일반 『스포—쓰』에 공개하기로된것이다

夏休를利用 五臺山征服

城大에서 決行

경성제국대학만몽연구회(滿蒙硏究會)와 산악부(山岳部)에서는 금년여름방학을 이용하야 북지의 오대산(五臺山)등산을 결행하고 계속하야 내몽고지방사정의학구적지답사를 하기로되엿다

일행은 미고(尾高)교수를 단장으로 교수여섯 조수넷 학생두사람 도합열두사람으로서 만몽연구반(滿蒙硏究班)은 동물학반(動物學班)에 예과교수 [illegible] 식물학반(植物學班)에 법문학부 석호곡(石戶谷)강사 경제학반(經濟學班)에 법문학부 영목(鈴木)교수 지리학반(地理學班)에 법문학부 다전(多田)강사 의학반(醫學班)에 의학부 이등(伊藤) 무등(武藤)양조수등 각각반장으로하고 다시 등산반(登山班)은 예과의 죽중(竹中)교수가 반장이되어서 회원의 연구재료를 몽고의오지에서 구해오기로되엇다

그리하야 일행은 칠월이십일 경성을출발 이십삼일 장가구 선화(宣化)를 경유해서 소오대산(小五臺山)을 정복하고 [illegible] 장가구(張家口)에 도라와서 다시내몽고의 [illegible] 소니특(蘇尼特) 백묘자(白廟子) 마왕부(馬王府) 아바가 서소주목심(西蘇珠穆沁) 임서(林西) 적봉(赤峰)을 답사한다음 봉천에 나와서 구월상순 경성에 도라올예정인데 그성과는 여러가지로 기대된다

暴雨中에도不拘 實業蹴戰開始

平壤蹴球最終日

【平南支社電話】평양운동계에잇서의 연중행사중에 일대장관을 이루고잇는 제십사회 전조선축구대회는 관서체육회 주최와 본사평남지사후원아래 제사일을 마지하야 십오일에는 실업단(實業團)과 청년단(靑年團)중학단(中學團)등의 결승전이 거행될터인데 예선에서는 거익 가경이잇서 평양축구단(平蹴)과 평의 대전이잇서 이날부터 평양군의 위어로 개전되여 전반전에 평양군이 엽대영으로 리—드하다 후반전에 드러가 더욱 순조를 거듭하야 또다시 이점을 빼앗기는 ... 결국 삼대영으로 평양군이 우승권을 차지하고 ... 전남도와 청년회 대구전(久田)고무회사 결승전은 오후한시 십오분부터 폭우중에 거행되고잇다

天道教陰謀事件

關係者全部不起訴

黃海道警察部에서 送局한

金在桂外四名釋放

【海州支局電話】 지난이월 십칠일 주검사국으로 송국되엿든 해주경찰서에서 검거한 천도교사건은 그뒤사월 홍(洪順義)란는 천도교도를 전도교구 사이에 손위천도교 신천서의형사 파송 김재계(金在桂)는 천도교구 (天道敎舊派)를 사국에서 관계자다섯명 전부를 불기소처분에 붓치고 즉시 석방하엿다

이사건은 천도교구파(舊派)를 중심으로 불온주문(不穩呪文)과 특별기도(特別祈禱)동의방법에의하야 불온한계획을 꾸며잇다

해주검사국에서 관계자전부를 불기소처분에 붓치엿다는 ... 지사일 해주검사국에서 관계자전부를 [illegible] 판대한처분에 붓치다는 설유를 하고 기소 천분 [illegible] 시국인만치 특히 서야 시국이 서 다섯 사람 관계자 동시에 오후 각각자 기약으로 도라가서 전양중이다

못미듬지게꾼

실사일 오후열한시쯤되여 부내 원정(元町)일정목 십팔번지 고교견자(高橋絹子)(三四)라는 녀자가 밝자로 개천(价川)에가려고 지게꾼한사람을 불러서 경성역까지 갓다달라고 주렴크두개를 맥긴다음 뒤를 따라가던 중 어두운골목에 드러서자 돌연 지게꾼이 어데론지 도망해버렷다는데 어보고를접한 소관경찰서에서는 목하 각처에수배중이며 지게꾼의 행방을엄사 [illegible] 중이며 가지고다라난 주렴크속에는 의복류 약삼백원어치가 드러잇섯다한다

今日『로타리』大會

府民舘에서 擧行

제[illegible]회는 십오일 오전십시부터 부민관(府民舘)중강당에서 남충독(南總督)대리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임석하에 성대히 열렷다 각지로부터 출석한 내선회원은 실로오백사십여명의 다수로 가위(?) 성황을 이루엇다 이들은 실업, 통신, 재계(財界)산업 기타 각방면중요기관의 대표인물들이만치 장내는 극히엄숙하고도 빗나는동시에 그질서가 또한 정연한바잇섯다 순서에의하야 일반가결과보고, 장래사업계획, 태년회장 회기결정등 각반사항의 토의를개시하야 회의는 오후세시까지 계속하얏다 (사진은 로타리대회장)

"칼가는남편과는 죽어도살수업소"

珍·一村婦의 離婚訴

【싸리원】의권화 매일밤마다 칼을 가는남편과 살수업소! 실사일경 북면건천리(金化郡近北面乾川里)근소장에의하면 원고강화군 소장이 드러와서 선지방법원 민사부에 어가는 오백이십사번지 임정히(任貞姬)는소화오년 목히상(睦熙常)과 결혼하야 전기소에서 부부생활을하여왓는데 남편 목히상은 로해결혼한것도 매질로 곤란을 남편이 아니라 최근에는 매일가라 단도를 갈아 위협하기가 일수요도 는원고의 안해를 일면이칼로 [illegible] 고 살수업다는것이다

한부로親하다逢變

[illegible] 향교로 부내종정 정(?) 이백사십일번지 조종성 (趙鍾成)(二七)은 ... 쪽되여 인사정(仁寺町)「희—뉴」에서 술을마시다가 안국정(安國町)삼십사번지 오씨 (吳氏)집에 모고잇다는 김숙주 (金淑珠)(?)와 갑자기 친하야저 서 그사다이가 ... 인물보고한다

沃野千里구버보며 蒼空漫步하는爽快味

갈때보담올때가鄕土情趣담뿍

光州定期航空初乘記

【本社洪社會部長記】 광주정기항공로 초승의 감명은왕로(往路)보다 귀로(歸路)로가「로캘·라인」의 향토적 정취를더욱 깊게하여준다 떠나는길은 한강을 건너편악산(冠岳山)을넘고 안양(安養) 수원(水原)을지나 충청남도로 들어가기까지는 전남에단여보겠이라 별로히감명이 깊지도 안코 충청도로 들어가 금강(錦江)을건너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은중해이라 눈아래보이는 풍경이 새맛이 잇기는하나 실상을말하면 비행기려행에 익숙치못한사람으로 더구나 첫길이면 지리를 살피기가 힘드는것이어서 가는길보다 오는길의 감명이 더욱 기리한것은 또한 당연한일이엇다 경험하야 오는길은 마음세해안에 눈 헤맬이 누엇다엿 넘으려는 시간이라 이때 [illegible] 으로볼쑤 내내 바다를 바라보는 맛이 또한 이롭다 ◇

광주비행장을 떠나기는 세시 오십분 장내를휘덮은 군중의열망적대환송속에 우리의 비행기두대는 역시 어깨를 가즈런히하고 떠올랐다 오전이나 마찬가지로 하늘은 구름한점업고 바람은 서풍이 약간불엇스나 올때의 바람보다는 훨신조건이 조화서 비행속력도 다소 빨럿다 망주출떠나면서 고도를 노피어 천미돌내외를 잡는다 약간 지대를 지나서 평야에나오니 여기는 넓이나 넓은평야가 먹줄을 그은그대로장방형(長方形)의배미가 수업시 정연하게 전개되여잇는것이다 산기슭이나 벌에보이는 논두렁이나 밧고랑이 지형생긴대로 물줄이흐르는대로 고불고불 자연에따라 그러진 곡선(曲線)의 묘사가 어데까지나 조선농촌의 평화롭고 한가로움을 늦기게 하는것이 흉면 대평야의 상공에 이르러 이처럼 정연해 대규모로 논배미를 지은 것을볼때 이것이 어떠냐? 고운 이런질떠우며 선뜻들리운다(?) 이강을가지게한다 여기는 김제(金堤)평야이다 그러것이 여기는 넘지않아 발의보고로 전조선에서 손을는곳도 근대식영농(營農)을 하고잇는 대자본의농장(農場)의 일흡이붓는곳이다 아직도흙맛을본 논이잇고 녹비(綠肥)풀섬은 파란 논이잇고 또묘판(苗板)인듯 연한초록빛에 물들은 논이잇고 또보리밭이잇다 어잇고 하야 누런 땅빛과 초록비치 가지가지의 농도(濃度)를 가지고 생동무이를한 평양의미관은 공중에서 보지안코는 추측이 잘안갈 장려한것이엇다 ◇

어느듯 금강이보인다 서해바다 저편으로 흘러내려간 넓다란 강어구는 봄안개속에 어렴풋하다 여기저기 점점히 노혀잇는 섬그림자는 바다에 떠잇는가 안개속에 숨엇는가싶다。강어구에 안개가 자옥해보이는 곳은 군산항(群山)인가고 손가락질 하는동안에 어느듯 금강상류 부여(扶餘)의상공에 날러왓다 여기가말로 이선로에서 가장 전망이 조흔곳일것이다 금도저기가 부소산(扶蘇山)에 그 가 자온대(自溫臺)요 백마강(白馬江)의 아름다움을 엿볼수잇다 이때비행고도는 일천삼백미돌이다 바로내려다보며 여기 위정가의 절벽이 낙화암(落花巖)당(唐)나라병화에 부여의영화가 일조에 불타던 의자왕(義慈王)의 혈사를말하는 백제(百濟)백의 부여를지나 예산(禮山)에나오는 어툼에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산중의 말산이다 들르도 은여럿이 보이는 것이다 점라도에 들어가도 어느곳에 섯가앗다 이것은 논밭으로 만히파들어내인것같은 모양이엇고 이산중의것은 석탕인모양이다

마주막 그날, 삼천궁녀(宮女)가 폭풍에지는꽃처럼 저절벽에서 경에몸을 던졋다는 저곳, 지금엔 옛영화의 자최도 백마강 맑은 물의 한줄기만이 고요하다 흰 돗단배한척이 조는듯 갈길잘 하고잇고 옛전설을 푸는듯 애련한감을준다

이 서편강어구로부터 동편에뻐든 수백리의거리가 잠간 고개를 구십도이내의 각도로 돌리어한눈에 바라볼수 잇는것이다 불빗도 강어구에서 한참 올라가기 까지는 호린든 것이 보여 부근에와서는 파라케 맑고 백사장조차 경결한것이 이천년 양인데 이러한경관보아 이방면의 전문지식이업는 서툰생각인지모르지만 람만도 비행기우에서 항공로를 늦기는날이잇지 안흘가도십다 평지에서 살피기 어렵든 지형과 산세가 공중에서 볼때 서로 이체적인 그상태가 가장나타나는편게도 잇겟고 또 장선명히 망백에보이는반게로 토질(土質)의대켜의 분포(分布)를 쭝알수잇슨것이 또한 공중관측의유리한점일것갓다 망상경영의 이아니고 일반산업에잇서서 비행기가 이러방면으로 널리리용 되는것도 이러한계이란것을 다시금늣겻다

해빛이 기우러저가며 해볏은 등장으로 직사되여 방안이약간 더워진다 그러데 공중에서 보는 서양이 또한각별한것이 어 중에서는 해저무러가는 감이지 상에서보다 훨신 늣다는것이다 그러치 안흘수업는것이 지상에 서는 뫼들이며 수풀기둥 여러가 지 장해물에 가리우는 망선이공중 에서는 거의장해물이안밧고 직사 되는한편에 노픈공중이라 좀 해 가놋도록 밝게비치여 시간으로 는 해가저물어가도 변한은 낫 과거이가래서 해가저물어가는광 이어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 면 저녁빛이 완연히 비치어는 바다는 허여케 은빛으로 번득 이고 땅우의궁호는 서양의 역 광선을바다 한층더 빗나는것이 망종 아룸답다 바로 아산만(牙 山灣)에 나와서 멀리바다와 육 지를 적우로이동 [illegible] 히ㅅ호 각은 절로 웅장한감에 가슴이 시원해짐으로 늣기는바이엇다 (사진은 비행장에서 항공관을 차를 열로파령)

航—研—機

二十一回翔破

【木更津電話同盟】 항연기 (航研機)는 목경진(木更津)을 동과하야 십오일오전 시 사십분 소요시간 두시간 삼분 누계마흔네시간 사십 팔분이 이러한다

京城保育學校

復興五週年記念式盛大

新設立者의就任式도同時

십오일 부내적진정(積善町)경성보육학교(京城保育)에서는 동교강당에서 동교부흥오주년기념식과 신설립자취임식을 거행하 엿는데 동교는 지금으로부터십 이년전에 고유일선(故柳一宣)씨 의 노력으로 창립되여 이래십 년간 경영하여오다가 소화팔년 사월에 설립자대표 석진형(石 鎭衡)씨와 현교장 독고선(獨孤 璇)씨등이 인계경영한후 교운이 더욱 융성하다 이와가티 기울 어지든 동교를 부흥식힌지 오 주년을기념하는 이날을 당하야 소화십삼년오월에 동교에 현교 팔판이 이러한다

여덧시부터는 동교강당에서 졸 업생 재학생연합축하음악회가잇 다(사진은 기념식광경)

사를 기부한 시내 다수정(市內 親水町)홍정구(洪正求)씨가 새 로취임케되여 례식까지 거행하야 성

鐵道軌道에轢死屍

십오일아침 일곱시오십분경에 부내왕십리정(往十里町)에서 용두정(龍頭町)에 이르는 철도 궤도에서 이십오륙세가량되여보 이는 근지룸업수업는 조선인남 자의 녹살체가 발견되엿스므로 동대문서에서는 곳 신원을 조사중이다

「開城舘」的婦慘殺犯

廿五日公判開廷

一般傍聽申請도遝至

지난사월십오일새벽 부내청진정 (淸進町)오백삼십일번지 내외 주점 개성관(開城舘)에서 변삼 한정부 리순히(李順姬)(三)와... 도림리(桃林里)의... 석... 이양 (?) [illegible] 두 관계... 밀... 씨의 공판은... 오는이십 오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본전(本田)검사 입회아래 심리를 개정하게되엿는데 ... 여러부터 와편리 ... 방청하려는 신청... 단체방청들 신청하여오는 중이라한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平) 少年小說朗讀 韓泰泉 ▲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朱耀翰 ▲七時三〇分 新民謠 張一朶紅 伴奏 DK管絃團 ▲七時五五分(東) 아코ー듸온獨奏 ▲八時一五分 野談 車青吾 ▲八時四五分 俗歌 曹弄玉 曹弄仙 ▲九時一〇分 유모어콩트 ▲一〇時一〇分 風雨豫報

色鉛筆

물까가 날개돗치것처럼 올라가는바람에 각방면의 우울한저기압은 뭉시도 그배치상태가 험악하다 ▲바람이불면 저기압이날러가는법인데 이바람은 무슨 바람이기에 저기압을 더욱 험악하게 배치하는고? ▲팔마라! 이바람, 이저기압=비상시바람 비상시저기압』이란다 ▲이런이야어가 낫스니말이지 최근파내모등 요용장직공들은 물까는 점점노파가는데 품갑은안올려주니 우리는 어떠케사느냐고 자단을벌 차례거릴하드니 필경 주인에게 간곡한 진정으로호소하고마럿다 ▲진정내용이 가긍하고 또동정할만하다=시국관계로 우리도자 숙하야 참엇스나 물가등귀로정말살어갈수가 업스니 엇지할도리가업다는것이다 ▲물까등귀로 당하는고통이야 대동지환이지만 그중에도 봉급생활자! 봉급생활자중에도 직공생활자가 더욱 얄숙한고통을 밧는다 탄식하는 말은 모동장지 배인의 눈물섞거 하는말이다 후!

天氣豫報

豫告 오늘밤은 흐리고 小雨가잇스며 明日도이와갓다

概況 高氣壓은半島東部海上에잇고 黑龍江中部 滿洲西方 天津及南京附近等에는 低氣壓이잇서 主로東進하고잇다 滿洲와朝鮮으로부터 本邦西部에 걸처서는 大槪흐리고 地方에 따라서 小雨가잇다 關東以北 北海道樺太는 날세가조타

昨日最高	二八、一度
最低	一三、五度
今日最低	一六、三度
正午	二〇、二度

暦

▲五月十六日(月曜)陰四月十七日 ▲干支戊申 ▲日出五時二十五分 ▲日入十九時卅五分 ▲日南中十二時卅分 ▲晝間十四時十一分 ▲月出二十一時三十三分 ▲月入五時四十八分 ▲滿潮(仁川)六時三十分,十八時三十分

임자일흔郵便物

昨年度全朝鮮에서

五萬七百八十八通

우편물의 수취인주소성명불상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할수업고 도로 발신인에게 돌려보낼수도업는 불착(不着)우편물은 ... 어 작년도중에 전조선을통하야 ... 어것을 전년도의 ... 비교하면 악화...함 ... 그러나 ... 오오만칠백팔십팔통이나 된다 ... 회송치못한 우편물... 결코 적지안흔 ... 체신국에서는 일반은 특히 주의하야 주소성명을 똑똑히 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金剛丸·興安丸

三菱造船所에서

三日間船體修理

관부(關釜)연락선 금강환(金剛丸)은 오는이십일일부터 이십사일까지 엿새동안 흥안환(興安丸)은 오는이십구일부터 삼십일일까지 사흘동안 각기 장기(長崎)삼릉조선소(三菱造船所)에 너어서 수리하기로되엿다 그동안에는 경복환(景福丸)으로 대신운항하기로 되엿다한다

基督教人을檢束

【京畿】경기도경찰부에서는 반국민에게 신사참배를 불응하는 식을올리지 엇는 교인을 ... 어제 ... 검거하야 ... 취조중인데 ... 은 되엇다 ...

스포ー츠

比島籠球連勝

對東京帝大戰에

【東京支社電話】 ... 比律賓籠球團은 十二日午後七時부터 東京帝大와 第一戰을 거행하야 ... 五十六對三十五로 比律賓이 快勝하엿다

比島 56 (30/17 … 28/12) 35 東大

코민산蹴球米國遠征

지난四月에 東京에來征하엿든 世界一流의 蹴球團 「코린신」팀은 四月二十四日에 米國加州「싼다모니카」에서 「세그라스」飛行機會社와 對戰하야 中에激戰을 演하더니 無得點으로 마치엇다

英國 0 (0…0 / 0…0) 0 떼그라스

伊國拳鬪軍招聘計畫

今夏伯林에서 열리는 國際아마추어 拳鬪聯盟總會에 出席하는 全日本아마추어拳鬪聯盟會長 嘉納日信大氏는 지난十二日에 神戶로부터 門司에 寄港하엿다가 十四日에 出帆한 郵船 箱根丸 으로 渡歐하엿는데 同氏는 말하기를 伯林에서 總會가 끗나면 곳 伊太利에가서 世界的強豪인 伊太利아마추어拳鬪選手 五名監督一名을 日本에 招聘하도록 盡力하겟습니다

明日의運動

▲庭球=京城實業團庭球리ー그戰第八日…遞信對商銀 (朝銀코ー트)

▲蹴球=學生蹴球聯盟主催 春期蹴球리ー그第三日…普專對法專 午後四時五十分 競技開始(觀覽無料) 午後五時 清凉里町 大學球場 (觀覽無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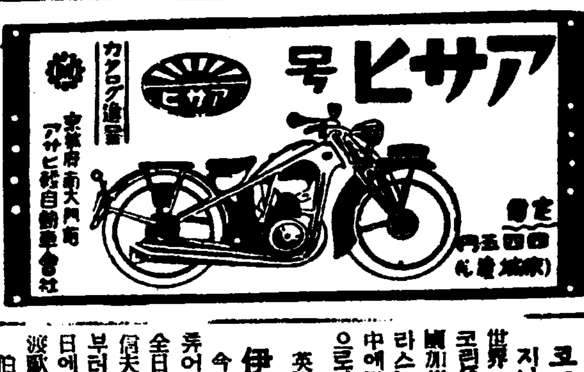
治淋特効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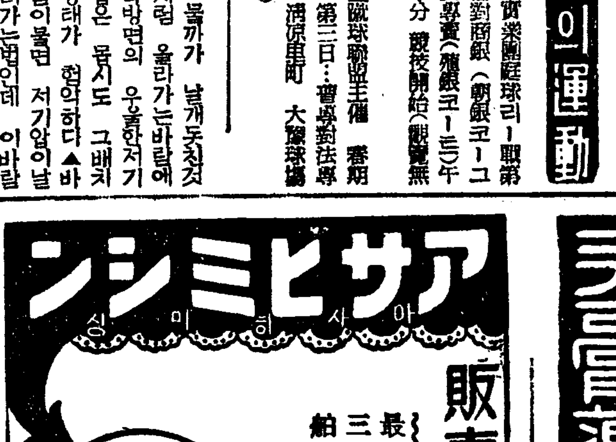
豫言

治淋特効劑 G—U—사이드(지유)는 그有効成分이 今世紀最大의發見으로서 實로稀世의名藥인바 特히淋疾이世界的으로蔓延되나 百藥이無効하야 治療할바를 모르는此際에 이藥이 出現하자 果然全世界에 一大센세이슌을 惹起하엿습니다。

G—U—사이드가 發賣된지不過數個月間 服用後數日에 急慢性을不拘하고 根治한분이 激增되어 社會는나날이明朗化하고 G—U—사이드의 名聲은 漸益高揚됩니다。

이에豫言합니다。今後G—U—사이드의 名聲을부러워하고 이것을利用하려는 模倣治淋藥이簇出하야 G—U—사이드의理論 或은廣告의文案·版形及輪廓 又는包裝의模樣이나 容器等中에서 무엇이든지模倣한것이 반드시잇슬터이오니 諸位는恒常G—U—사이드에 注意하시여 模倣品에迷惑되심이업기를바라나이다。





윤고약 尹膏藥

手術안코도惡性腫毒과 骨髓에가피든어렵고, 오래된瘡毒을잘낫게함

大 藥價 小
京城府長橋町八 製造本舖 慈祥局
振替口座京城三二五三番

毛生促進器

薄毛, 대머리, 無毛, 拔毛의분에 게 무료로貸與

名古屋市中區 名大物療部

百日咳에 コデス

尨大·二千萬圓으로 禿魯江에"땜"設置

明年度부터三個年間에完成

江界水電劃期的計畫

【新義州】압록강수력발전사업을 이르키고잇는 세계의수력발전을 하고잇는 압록강에 도강계독로강(江界禿魯江)을 막어 발전사업을 이르키려고 공사인가신청을 평북도에 제출하엿다는 『뉴-스』가 잇다

강계수력전기회사(江界水力電氣) 사장 안천웅지조(安川雄之助)씨로부터 수일전 평북도를 경유하야 총독부에 수리발전공사인가신청을 하야 왓는데 계획안을보면 총공비이천만원으로 소화십사년도부터 삼개년간에 강계군고산면신흥(江界郡高山面新興)의 독로강(禿魯江)을 막으려는것인데 공사의 중요한내용은 다음과갓다

▲『땜』의기리(長)=三三三米

▲最大發電能力=九○○五三三키로

▲有効落差=三三八·五키로

▲貯水量=四億八百六十萬立方米

▲水面面積=二千八百萬平方米

巨文島住民들 施設促進陳情

全南新貝知事에게

【麗水】총공비 이십만원으로써 현재 축항공사를 진행중인 전남 여수군삼산면거문도(麗水郡三山面巨文島)에서는 수일전 전남지사의 내도를기회로 지방각계대표자측에서 지사에게 진정을하엿다는데 그요항은 다음과갓다

陳情事項

一、築港第二期工事促進의件

二、巨文島尋常小學校校舍改築의件

三、上水道設置의件

四、金融機關設置의件

安東縣傳染病者 七十七名의多數

【安東縣】안동영사관경찰서에서 조사한 금년도의 안동시내 전염병발생수를보면 성홍열(猩紅熱)사십명을 필두로 장질부사 적리등을 합하야 칠십칠명의 다수로 그중에 사망하엿다하며 작년에 비하면 다소 감소되엿스며 방역당국의 어 양호하다 할수잇스나 성홍열은 의연히창궐하고잇다한다

全北道에 教員不足

【全北支社發】전북도공립초등학교교원은 교장이하 훈도 촉탁(囑託)등 ... 명인데 현재 ... 명이 부족하야 ... 지금까지 개설하지못하고잇는 교원부족으로 ... 학교당국은 물론 교원난으로 ... 고대하고잇다고 한다

全朝鮮配給綿系의 約五割은平南에

今年度綿系配給率은決定되엿스나

公定價格과"票"制度는未定

【平南支社發】면사(綿絲)의 수급난으로 한창바쁘야할 조업기(操業期)를 직면하고 초조한입장에처해잇는 조선내의 면사포업자를위하여 총독부에서 알선하여 십삼년도에 배급할 면사의 수량은 다음과가티 결정되엿는데 평안남도에는 전조선의 오할을 차지하게된모양이다

총독부에서는 내지에서 이입한면사와 조선안에서 방적회사의손으로 만드러저 공급되는면사는 지정면사포상회동맹회원으로 확보케하고 여기에서 각도면사수급통제조합에 배급케하는것인데 각도에대한 비률기준은 각도에서보고한 소화십이년도소비실적수량과 십삼년도 소비예정수량을 기초로하여 전자는일

호자는삼의 비례로 산출하엿다 이비률에따라 금년오월분 조선내 전부의 배급량은 사천표백표(俵)이므로 평안남도에는약오할인 이천사백오십표의 수급이확정된셈이다

그런데 평남도에서 금년도요구총수량은 사만표이므로 이배급비률에따라 십삼년도는 약삼천표가 주러지는 삼만오천표에 머므러지게되엿다

총독부의 알선으로 평남도에서우에와가튼 배급을 밧기로되기는햇스나 문보한바와가티 공정최고가격(公定最高價格)의 제정과표지 제도(切符制度)의 확립이 실현되지안는이상 양말업자(洋襪業者)나 메리야스 군수품(軍手)등업자의 생활보장을 기

키어려운바잇스니 내지시세보다 사분의일이나 고가를 지불하고 면사를 어더다가 양말메리야스 군수품을 생산해본댓자 판갑의로 면사배급을수잇는 내지공장상품과 경쟁을 할수업을것은 사실이어서 금후의사태가 퍽도 주목을끌고잇다

屯浦幼稚園開園式

【屯浦】충남둔포(忠南屯浦)에잇는유일한 유아보육기관인 둔포유치원(屯浦幼稚園) 개원식을지난십삼일 오후여섯시에 거행한바정각이되자 운영하는 유아를 의자모(姉母)들과 내빈참석리에 동원장 최경동(崔敬東)씨로부터 개회사가 잇슨후 일동이 기립하야 국가제창과 황국신민서사 랑송이 잇슨다음 천진난만한어린이들의 여러가지의 동요、장가、율동이 잇섯스며 내빈중에

永登浦商榮會員 各工場을見學

【永登浦】영등포상영회(永登浦商榮會)에서는 지난십삼일의 공휴일(公休日)을 이용하야 회원일백팔십여명이 동양방적(東洋紡績)종방(鐘紡)『기린맥주』등각공장을 견학하엿다

公州學院開學

【公州】충남공주학원(公州學院)에서 중학입학준비과를 설치한다함은기보한바어니와 다년교장으로 경험을갓고잇는 권영옥(權寧玉)씨로 정하야 지난십사일오전일시 신입생개학식을 거행하엿다한다

布施市工場火災 一名燒死五名火傷

【大阪】지난십일일 오후칠시 십오분경 대판부하포시시북사조이정목(府下布施市北蛇草二丁目)세쿠로이드가공업(加工業)심전심오랑(深田甚五郎)공장원료실(原料室)에서 불이나서 동공장과 여페사는 고명원(高明元) 이성배(李成倍)집등의세채를 전소하고 동팔시경 진화하엿다는바 전기

印鑑을僞造賣喫

管理하든남의土地

城津署서嚴重取調

【城津】성진군 학상면 성현동(城津郡鶴上面城峴洞)김영순(金永淳)(假名)(五三)은 동리에거주하는 윤길학(尹吉學)이라는사람이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평령(嶺)방면으로간후 윤(尹)씨의 토지세밀이천평 가격 약일천오백원어치를 관리하고 잇는동구후윤(尹)씨는 객고(客故)하고말엇다는데 김(金)은 윤(尹)씨가생

존하야잇는것가티 학상면(鶴上面)사무소에 거주계(居住屆)를 제출한후 인감증명을 청구하여가지고 전기토지를 전부자기소유로만들어노코 얼마전에 파러먹은것을 윤족들이 알고 성진서(城津署)에 고소(告訴)를 제기하여그서에서는 김(金)을 문서위조행사(文書僞造行使)사기등죄명으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平壤蹴球畫報

上으로부터 專門團에 優勝한 世醫의 ... 學生應援團、光中對崇商戰光景、出戰하기前의崇商戰密觀光景(崇商)

蹴球界의豪華版

中學團準決勝 崇商軍快勝

箕林里球場은人山人海의偉觀!

平壤蹴球第三日詳報

【平南支社發】축구도시평양전서선들 떠들석하게하는 관서체육회의 주최와 본사평남지사후원의 전조선축구대회는 날이거듭할수록대회기분이 고조되여 제삼일인 십사일에는 이번대회의 크라이막스라고할 중학의 준결승전 전문의 결승전이잇고 또 토요일인만큼 다수의 부인이섞긴 팬대중이 운동장으로 장사진을이루워 오후에는 장내에 사람의 성을 두른가운데서 용맹하고도

세련된 개입은 진행되여갓다

世醫3(2…0 1…0)0平醫

【專門團決勝】京城世醫專對平壤醫專戰은 午後四時二十四分부터 紺審增(主)朴仁植 朱大德(線)三氏審判아래 世專先蹴으로 開始劈頭부터 世專優勢로 平醫專을 苦戰케하더니 八分에B W李鍾鎬君의 패스를 CF嚴鳳鉉君이잡어"드리볼"하고드리가 門前五米에서"슛"한것이 "골인"二十五分에 다시 平醫專危機이스나 GK李晃根君의 善防으로 免하고 平醫專에서도 强烈한風勢를 利用하야 逆襲을試햇스나 世專方은 世專의守備陣을突破치못하다 三十分에 世專軍R I金鳳麟君이"패스"하는것을 L崔昌壽君의 妙蹴으로 다시 一點을加하야 2—0 後半戰에드러서도 平醫專軍苦戰하면서 必死의 勇을다하여 恢復하려고햇스나兩便"빽"의善蹴과凡蹴으로 失敗또失敗를거듭하다 世專軍十六分에"패냌티"을利用하야LH李鍾燮君의"슛"으로 3—0勝負는 決定的으로 대드니 맛츰내 서로得點업시 決局三對○으로 世專軍이 昨年度의 優勝을繼承하다(게임九十分間)

崇商2(1…0 1…0)0光中

【中學團準決勝】崇仁商業 對光成中學戰은 午後二時 四十四分부터 金光貢(主)金龍浩 崔永福(線)三氏審判아래 崇商先蹴으로 開始 처음부터 兩軍意氣衝天하야一進一退하며 本大會最初의一大激戰을 演出드니 十四分에崇商軍 敵陣을돌코 드리가CF崔南國君의 『패스』를 RW韓炳三君이 쪼차드러가며"슛"한것이 보기보케『골인』 비로소 一點을 先得하자 戰勢는 加一層白熱化하야 十八分에 光中『패냌티』을어더 GK의善戰으로無爲 後半에드러서도 亦接戰을繼續하다가 三分三十秒에 崇商軍CF崔南國君의 妙蹴으로 一點을加하야 結局二對○으로 崇商軍이勝捷(게임七十分間)

【光成】 七十 GK 吳仁 FB 李龍觀 HB 洪吉成 ...

【崇商】 ...

江陵 第三回關東蹴球大會

▲時日 五月廿八、九兩日間(雨天順延)

▲場所 江陵邑公設運動場

◇主催 朝鮮日報江陵支局

◇後援 江陵體育協會

鑛山專門窃盜團

九名에게各體刑

洪城支廳에서求刑

【元山】조선에선적을둔 운반선 상환(祥丸)에 갓다가 중유(重油)를사지못해서 오도가도못하고 원산에 입항하엿다 ...

【洪城】보령군청북면하만리(保寧郡川北面下萬里) 정룡해(鄭龍海) 구명은 자기들의판산이번와 전광이므로서 경합이잇는것을 기회 ...

▲柳俊熙 鄭英熙各十個月▲金鳳濟 姜成百各十個月罰金五十圓式 ▲李英鎬 柳公烈各八個月 ▲尹大成 六個月役加罰金三十圓 ▲鄭龍海八個月役 ▲柳昌淳 一年

面對抗蹴球에 贊助金이遝至

【江西】본평강서지국에서 제이회면대항축구대회(第二回面對抗蹴球大會)를 개최한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소식을드른 군민들은 본지국의활동적사업에 감격하야 일반유지들의 찬조금이 답지하는데 이에감격하야 주최측에서는 본대회경비를 될수록 절약하야 시국에 이시국이니만치경비를 국방헌금키로 하엿다 그리하야 일반군민들은 더욱갈겨을 마지아니한다고한다 지난 십사일까지에 찬조한인사는 다음과갓다(氏字略)

十五圓金基璉 十圓金基五 七圓東一商會 五圓式崔錫龍 吳錫祥 李憲淵 金丙洙 四圓金勛 金基穆 宋益三 二圓式河東旭 六圓秋鍾崑 三圓式高麗堂 ...

留置場殺人犯 四名에判決言渡

【大阪】기보=지난이월이일 대판부금궁경찰서(今宮警察署)유치장에서 술에다가 남의자전차를 라고가다가 동서원에게 체포된 제주도(濟州島)출생 김명천(金明天)외일명을 ... 을 작당구타하야 드디어 죽게

燃料供給을못해 貨物船S·O·S

燃料統制가나은波紋

【元山】조선에선적을둔 운반선 상환(祥丸)에 잇다가 중유(重油)를사지못해서 오도가도못하고 원산에 입항하엿다는 원산부 죽전(竹田)잡지점의 선주에게 808을 청한연료통제시대에 서만 볼수잇는 사실이잇다

원산부 수중정 적전목(佐佐木庄三郎)씨 소유선재오대세환(五大歲丸)(四三○톤)은 흑연(黑鉛)을사러일본(日本)의 도근(島根)에 기항하엿다가 하관(下關)에와서 중유를 어더려 가랫스나 중유서가 언어 ... 지안음으로 지금 하관에 계류하고잇는중이며 도가는 중 조정

삼호(朝井三郎)씨소유선 정파환(靜波丸)(五九톤)은 염어(鹽魚)를 싯고 북해도로부터 조선에도 라오든길에 추전현 주전항(酒田港)에 기항하야 중유를사려하다가 필지안어서 못사고잇는동이다 그리하야 지난십삼일 두배명서를 보내랏는 전보를보내 다 이에두선주는 원산의선주에게 '중유를 살수업서서 못간다 지급히 중유를 보내달라'고 ... 저가서 중유서를 청구하는 원산부청에서 산부에서도 그대책에공하야 도당국에 구조책을 조회중이라고 주이가 주목된다

新給與制度撤回

警察官干涉으로

安東고무職工罷業問題

【安東】시내 다섯 고무공장의 종업원이 단결하야 직공의 임금인하를 단행하려는 제도에 대한 반대운동은 ...

全朝鮮弓術大會

【公州】충남 공주연정협회주최(公州研亭弓會主催)에서 본보의 공주분국의 후원으로 오는 이십삼일 ...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102】

소굴(七十)

어때 청석골서는 대장과 대장의 버금가는 유력한 두령들이 ...

男의日陰者

生殖器弱小가原因으로罪를犯한男子

이것은 市ケ谷서 그와最後로 立會한사람이면 充分히 알고잇슬것이나 公表할것이 못되므로 그이라고만 말할터인대 그는偵探的 大惡魔로서 一世를 震駭케한것입니다 그가어째이러한大罪를 犯하게되엇느냐하면 그의生殖器는 꼭小兒와 가티서 다른사람과가티 帶妻도못하고 드듸어 變態魔로 化하야 大罪를 犯하게된것인대 世上에는 그이와가튼 煩悶을 가지고잇는 사람 或은弱小하면서도 自身이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決코 적지 안습니다 이可恐할犯罪와 家庭悲劇의 原因을 探究해보면 性障害에 起因하는것이 만코 青春時代에 한번 手淫을하는結果 生殖器의 發育力을 阻止해서 適齡이되여도 小兒와가티 短小하고 우먹거지가되고 또한 中樞神經을 害하야 遺精、夢精을頻發하고 陰萎、早漏가되며 結局은精神薄弱者가되고 勇氣도 體力도업는 머저구리가되고 무슨일에나 가기를꺼리고 孤獨 逡巡해서 善人의아메 나 怪物이고 恐懼

와 判斷力과道德觀念도 업서저서 自暴自棄的인 危險한者가되여서 罪를犯하게되야 親兄弟에망신을주고 他人들의게서 사내가라고 손가락질을하게되는등 행새도할수업는 廢人이되는故로 性器에 缺陷이잇는男子는 一日이라도 速히 我國唯一專賣特許의フーブ强大法을 實驗하고 安全確實히 短小를 强大케하고 包莖을矯正하고 陰萎早漏 遺精 夢精 手淫의害를一掃해서 元氣活力을 挽回하고 强潮한 男子로서의 資格을完成해서 悲劇을 未然에防止하고 前途의幸福을 開拓하시요 說明書는 新聞名과 キヨ보내라고써서 申込하면 普通人의 生殖器의 發育程度、緊張時의 統計、手淫과 包莖의 有害한 얘기 年齡에 따른 適當한 回數、其他男子必讀의 事項을 滿載한最新强大法을 無代贈呈하겟사오니 速히 一讀하고 自己의性器가 普通인가 아닌가를 檢討하시요

住所는 東京中野區城山町 東京賞巫療法研究所

●感嘆!感嘆! 정말頭痛에써조흔 ノーシン이다●

輕便洋服收納器と自動開閉洋服覆器

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折疊式

輕便洋服收納器 三個付掛 大特價一個 二圓九十錢(一個小包送料九十三錢 三個小包送料一圓五錢) 長三尺六寸 本品は室の何れへでも掛けられ中央より吊下の兩用にもなる體裁便美なカーテン張り洋服ダンス代用の流行品です三着分以上の洋服、オーバ、ズボン、ワイシャツ、ネクタイ等一切掛付です。 折疊寸法 長一尺一巾 一尺八寸 二寸

自動開閉洋服覆器 三個付掛 大特價一個 四圓五十錢 特製別珍ブロック五圓二十錢 一個の小包送料 代引九十三錢 寸法 カーテン横縱 一尺一尺 八寸三寸 長四尺 本品は掛吊兩用自動開閉の出來る便美なるカーテン張の洋服ダンス代用品で洋服ズボンワイシャツ等三着分に適し體裁のよい室內裝飾品です ◎特約店大募集 カタログ無代進呈 輕便 カーテン張 ダンス代用品

名古屋市中区老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機械 鉱山 農具 工具 平壤南門通 五大商会本店 電話代表56 カタログ進呈

母親이여 心慮치마서오 愛兒의泄瀉에 小兒胃腸 藥中覇王 兒科散(니까산)이出現! 니까산 主治效能 1、消化不良 2、下痢腹痛 3、乳兒青便 其他兒孩의諸般下痢症에最安全한藥입니다 定價 金二十錢 金三十錢 金五十錢 金壹圓 ニカサン かぜのこ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少年 단 섬전

性器强大藥 男子性器短小와 早漏에 百發百中!!

早漏防止 (淸導補腎丸) 國覺大藥房

特等 白麥 五斗入一叺 金十圓也

림질약 可驚할根治藥! 濟世堂藥房 京城府長沙町一四六

商標 元 고초가루 仁川府花水町 天一製粉工場 電話五三三番 都賣商 價格表進呈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京城府黃金町六丁目 中等豫備專修學院

リグレー製 スピヤミント チウインガム 每食後 잇지마시고 消化를促進하고 口氣를 爽快히 합니다

流行歌 妓生이울지마라 풍김치家庭 朴響林 콜럼비아레코드 Columbia 南一蕙·金海松

MPM 엠푸라지니 メタフラム 純白金と變らぬ 岩崎商店

藝術에의 志向

日大藝術科 閔德元

非才의길

創作藝術을뜻하는 自身가운대서 天才아닌自我를 確實히 認識할때가치 섭섭하고 寒心하일은업슬것이다 藝術은 天才가아니면 能히 大成할수업는 事業이라는 定義의가까운과말을실토록 읽고드터왓다 二千春秋末滿의 芸苑으로 온世上에 名聲을날린 數만흔 歷代의 偉大한天才藝術家를나는안다 그리고나는 다시 天才아닌有象無象의 數만흔 文人들일지라도 다제各己自我의 藝術的境地를 構築하고잇스며 自己의 藝術的勞力의지증을 비록 적으나마 發揮하고 잇다는 事實도알고잇다. 딸아서나는 自身의 無能을 天才아닌文學靑年의 歎息을도도록 맛보아왓다.

文學의길이 文學하다는것이얼마나 險難하고 힘드는어려운것이라는것 一生을바치고 生命을다하여도 오히려바다업는 無窮한世界라는것만은 겨우깨달엇다.

그리고同輩들의作品들이 비록 未完成의域을 一步도脫치못한戲作이라손치드래도 글줄과줄사이에군데군데 번뜩이줄아는 文學的資質의 閃光을나는 發見할적마다 自身의 文學속에서 그것을 發見할수업는 凡庸함을또한 느기지안을수업다.

그러나 나는多幸히 여게失望하거나 落膽하지안는『파-마넨트』의心臟을가젓다. 내 胚床머리에는『한가지 目的을實現치안는곳에 成功의秘訣이잇다』는『스마일』의 箴言이부터잇다.

아무리 鈍才일지라도 내性格과 素質속에 文學以外의 다른아무것도 차저내지못할때 絶對絶命의境地에서잇는 自己를깨달엇다. 一步라도退却해보아라 거게는斷崖의深淵이다.

제아무리 險峻한길일지언정나는 아프로前進해야한다. 애초부터 꿍꿍奔騰한 暗闇에 걸고온 나는 아니다. 방황하고 북을치며 不幸을 알고 덤벼드는길이다.

藝術創造는 人間生活의 條件 나 봇곳의作品은 決코아니다. 이다. 때문에 作家로써한 人間이 되기前에 人間으로서의 作家를 닥거야 할줄알며 創作技巧에 붓들리기前에 社會를 배워야할 順序를 理論을 通해서보담 生活에 直面한 體驗을 通하야 理解할수잇는일이다.

똑바른 人間性의 把握과 社會現象의 理解가 업는 創作이 잇슬수잇스며 잇다면 그것이몃양重의 무게잇는 藝術일거냐.

때문에 創作에 잇서서의 模倣의價値는 技巧形式의 外面的意義는잇슬지언정 作家精神의 內面的價値는 全無한것이다 적든크든 自己獨自의『큰니-크』하境地와 世界에서 우리나는 즐기잣을 이創作될때 비로소 藝術의참된形象이갈잇는 有意義한것이다.

그리고 獨特한 自我의 藝術的個性는 客觀와主觀의 完全한 結合과統一이아래서만 可能한것이오 成熟할수잇는것이다 어客觀와 主觀의 統一된調和가 업시는 健全한作品을生產할수업는것이다 때문에 作家는 언제든지 眞正한客觀 客觀의透徹한觀察을게을리해서는 못쓰며 참된理解와올바른 把握에서만 훌륭한作品을 創作할수잇다는것을 이저서는아니될것이다.

여게 天才아닌自身의『非才의길』이 잇다. 끗까지 眞理의科學的探求와 知性의努力을 經由한 人間과 社會에의 觀照를通한 反映으로서의 作品生產의길 이길을 抽象化하지안코 具體的으로 形態를가춘 實踐的길이되기爲한 細密한方法의 樹立과實現이 非才의 路線의 當面問題일것이다.

準備期

바다가를 生活을보고 嚴然가를 육요할 가지고치는 存在. 넘우 欲心이 크다고, 하지말라 事實이 만흔 慾求와 欲望이업섯든들 나는 오늘까지 그리고 이아프로도 이루워진 生命을扶持해 나가지 못할것이다.

現實에잇서-아무自信도가지지 못한人間 뜻하는文學에서도 自信과 푸라이드를지키지못하는不幸한나의形骸이 將來할欲求마저 喪失해버린다면 그는너무悲慘한 일이다.

『남어야 어떠케입든 나는나를 詩人으로알고산다 毎日밤잣혀마다 나는天才거니생각하고 잠이 든다』는詩를勸攻하는친구를보고 나는 그의정열을 무척불어위하엿다.

自我의才能과 天質에自信을가질수잇는者의 幸福과 自身의無能을깨닷고 努力할려는者의 苦悶과努力意志 이두個의價値가 참다운成果가 어떠한것일가는 나로서알수업는 未來의이야기이다 그러나事實 나는가지 凡庸한者의 꾸준한努力은 缺乏된 才質이 가다어야할 地域까지의 間隙 나의길이며 方便이라는것만 밋고잇다.

……社會가 뒤집히고 混亂되엿다고 서둘며, 모두들 方向업시 그날그날의 私利私慾속에 헤엽치면서 오즉醜態를 演出하고잇다. 모두 눈독갈을 연자마간의말가티 밟아며現實만보고 그것이 生活의全部요 社會와 歷史의決定的運命가티알고 덤빈다. 그러나 좀더-視野를넓피여 한거름 아페서잇는것을 눈둘음 가지고 從容히、꾸준히 앞날을爲한 準備를 할줄알어야 할것이다.

艮背의工夫

中專 鄭雲韶

여워볼가를 거문琉璃를通해본다.

天井에白灰로 에워싸인 壁볼이 붉은寂寞에떠는標 雅淡도스러워 아! 可憎도해

밤은기적거니하는想을 讓하듯 하-트型時計가 소리업시 열두點을가르친다.

오늘-來日. 實로 無常이랑은 詩하여볼세지한말슴이다.

때여! 運命이여! 나는 카-단 悲劇의役者일수잇다.

怨望과希望의 中境에안저 할몸금 末練에서 懊惱한다. 열두點 無限에圓을 構想지안트라도 可히 運命에中點을두고시픈 哲學을 固執한다.

언제나 悲劇에서 살지지못하는 이나라의風俗으로 이밤의從容은 가장 貴한때일것이니 나는 눈을감는다.

애써 강은瞳子가 매우 아프고나.

벗이키워준 하-얀薔薇의 美貌이수는 조고만安慰도 못마른 붉은 情熱의 샤늘함도 함혹금 悲哀이더니 實로 서글프마음에 蜜柑의發臭가 異香삼켜버도하다 어둠을덥고잇는 카-텐사이로 거친숨김에 神經도脆弱한 上體를 덥고 酸素를 마시는惡魔는 누구냐!

봄도일를 空氣는차다.

이미 不用한지 오-래 스팀도차다

애닯은現實 앗질한運命이다.

어느 흥려버린 存在일흔 存在찬는煩悶를 욕할수업는靈魂은 언젠가 따에서나코 또 따에서 죽는다 나는따를 떠날수는업다 그러기로 深奧한過程(悲劇)을 따의內容(體)을 알어야한다.

가저보지못함이 無限설고 人間이라 自負에 살찌질못한다.

열두點은 넘은지오-래 말업시限想에 오늘아닌來日 흘러간 오늘을 어제라고 才操잇게 새임질하여불러 再興하는 崇嚴을 마즌匠房의 자다깨인 어린아이의울음이 흐허논다.

어린마음 누구인가 藝術의肥料라고 宇宙의焦點이라고 詩한結論다.

첫째 어린아이는 悪情이잇슬뿐 戀愛를 모른다 그러기에幸福할수잇다.

나의祖先도 어린아이엿다.

나는 네해前 8살結婚을햇다 -아니 카-다賭博(幸과不幸의)을……。

그러나 不運한 삶이엿다.

恒君이라는 죽은頁殺속에 自己封寒의心悔가 날느날도작더을든다.

그러나 뉘를 怨望하리오! 핫내는 이따를 怨望햇다 咀呪햇다.

나는 이러한悲運을 存在한兄弟의 幾何의 多數를 잘안다. 情熱의塔에서 墮落된바 列數 열외이며 나는 그들을 白眼마을롭다.

거기서 綠坡벗나 生活을 一變한다는女性을 몹시 벗어날을를 誘致하야『카-단 일히사랄』의 標本을 나타내도 가잇스러니- 그때의 나의感情은 惡意하야져 오날의 孤獨을 께므는못한孤獨이 마음全部를 할트고잇다.

남은悲劇속의 亞拱마리아는純潔도하여터 아름다운 넘은感을는 침묵사이어주는가! 어느때는 그런女人을 사랑하고지윗는 나의초라한 오날의存在는 그러할수잇는 情熱을 일허고나- 意味잇는 變化일수잇는限 自覺일수도잇고 捨棄할수도잇다.

다만 自覺가잇슴을 自覺할 어디선가 拍子木소리가 딱한마음을 길러둔다.

(끗)

—詩— 『森羅』

中專 李尙鉉

時節이 활근한 입김을 吐하며
花草는 매우 살쪗다
벌(蜂)! 살며시 너는 주둥아리를박찌
×　×
찻는한 壁에
四肢를 버뜨드고
風體가리 거친 망울의 心思
×　×
新綠이 무르녹은 五月
감자알이 익을듯한 七月의 白沙
개아미! 너는 身邊에 障害를 아느냐
勤勞에 남는 찌거기는 무에냐?
×　×
熾烈한 暗際이 飽和될듯한 밤
仙人掌의 유들 유들한 氣象
재(灰)간 녹엇는 情熱이
深淵한 指向을 바덧노라

—三、二十五—

血液型과 氣質

世專 兪炳瑞

人間이란 動物도 進化하動物이다 그러므로 各人各態의血液과 氣質을 가젓슬것이다. 그러나 古代學者들은 人間을 크게分類하여 『하모레트型』『돈키호테型』로 하여다 또는神經研究者는 『심파토니型』『바고토니型』을 云云한다

近代醫學에선 血液型을 勿論 A、B、O、AB四型으로 分類하엿스나 最近日本의 一學者中에M、N型을 發表한者잇다 그러나以上과가튼 分類는 大體로 보것이다, 인제大體로 本血液型의氣質을 論하면 美點만 봄진데A型은 君子 B型은 豪傑 O型은英雄AB型은 天才이다 短點만봄진데A型은 憂鬱 B型은輕率O型은 固執AB型은狡猾하다

古川氏發表에 依하면

O型 沈着 冷靜 無感情하고 精神力이强하며 固執이쓰다

A型 溫順 憂鬱 溫厚하고犧牲性이잇고 果斷爭鬪心이업다

B型 輕率 快活하고 感受性 依賴心이만코 奢侈한다

AB型 表面은 B型갓고內面은 A型과갓다

勿論 上記한 어느型에도 屬하지 안흔氣質이 잇슬것이나 血液型은 그어느것에든가 屬하다 統計學上 英雄은 O型이만흔것을보아 血液型과 氣質은 密接한關係잇는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인제 論하려는것은 治療學에서 血液型을 參考할 必要잇다는것이다 現代醫學에서 輸血時는 반드시 血液型을 檢査한다 그러나 其外 法醫學方面을 除하고 治療學方面에서 血液型을 參酌하는例는 殆無하다 그러데治療學에서 血液型을 應用할必要가잇다 그는 即患者의 氣質을 알어 治療하기爲함이다 한例를 들면 꼭가튼消化不良患者에서꼭가튼藥으로 한患者는 某博士의 治療로 快癒하고 한患者는 某醫師의 治療로 快癒되지못한다 그때의 治不治의 原因은 따로 잇슬것이나 두患者의 血液型이 달으것도 큰原因이 될것이다 即 氣質이 다른것이 큰原因의 하나이다 그러면 不治의 運命에빠진AB型은 某博士의 卓越한 說教療法으로 治癒할수 잇슬것이다 그럼으로 氣質을 먼저알어 그마음의病을 治療하고 肉體의病을 治療할 必要가잇지안흘가? 이는 極端의例일것이다 그러나 最近 有名한 學者들이 醫家에잇서서 宗敎와 法律의知識의必要性을 말한다 그는 法律的으로 肉體를 健康히하며宗敎的으로心神을健全케할려는때문이다 또精神病科 小兒科領域에서 敎育學엔 心理學의 必要性을므린짓는다敎育學은 近代醫學에서 가장 『델리케트』한 血液型을 參酌하지안흘수업스리라고밋는다 如何튼未來治療學에서 血液型을 반드시 參考할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

(끗)

晴曇 (三)

本報當選作家短篇리레-

車自鳴作 崔根培畵

그때의 논밧을 파는 저상이 랍창으로 향하햇다.

류구장과 그외 몃사람은 필어서 벗을갑허야 한다느니, 류초지를 위시하야 몃으니 축에서는『저어가 암만그러다면 목을 베여 가겟느냐』고 하며 빗을 절머지고 잇슬망정 땅은 못판다느니 하고 의견충돌이 생겨서 말다툼도 하고 싸옴도 하엿스나 결국은 자기네 조상을 파는것보다 더 슬픈 역이면서도 하는수업시 그 땅을 팔엇든것이다.

『우리 류존에 재산을 등얼면 그럴듯한생각을하고 잇는데 작고 약오른 말슴만하니 그러군나-』

『그저일이 조급스러우면 판연한 일에도 승벽이 나는니-그러데 무슨 그럴듯한 생각이잇나-어데 말해봐라-』

류구장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아라깔든지 아들에게 의견을 뭇는다. 하기는 세살난어린애말도 귀담아 들으라는 속담과가티 혹시 젊은사람의 의량에서도 엉뚱한 생각이 날는지 몰나서 물은것이다.

『글세올시다 우리 류존에서만 얼마나 될까?』

그래도 조중힘으로 어떠케 안될까하는 류조시의 웅출한 말에 치서는 칼칼한 성미를 못참어서

『무어 빤―한 일이죠!서발막대를 내둘너도 하나 거칠것업는 동리형편인데요』

하고 입바른 말을 한다

『너는 의논조천로 말하는데여정은 왜내니!』

『글세 생각해 보시구려-류존에 재산이란는게 빠-ㄴ하지안어요?우리집에 알뜰한 소한마리 치수에 새우등진 돼지두마리 추석이네 달구지(牛車)한채 그것밖게 또렷한 재산이먼니까!동시가른 사람들까지 다팔아도 몇갑의 절반도못될걸요』

『그러케 손지하게면 애초부터 사겟다고 수군댈건 머노-한백년 요모냥대로 살다죽을밧지』

하며 류조시는 적중을 흥걱낸면서 애꾸진 뷘 담배ㅅ대만재터러에 탁탁 턴다.

『그래도 모혀안저서 벅작을궁리라도 해야 개일망정 잡지안켓수……』

치서도 한마디 지지안코 댓구한다.

류조시와 치서가 공연히 흥분하여 말다툼 하는것을 보고 류구장은

『이러케 떠넘게 아니라 진중히 생각하누라면 무슨 대책이 나서겟지! 치서 네가 잣작고 잇서!』

하고 아들을 꾸짓는다.

『글세 제가 뭐합니까―남은 석달열흘을 옹셔대도 별묘책이 안생길터이니 다른방면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잇잔어요』

『그래 어떤 방면으로?』

치서는 한참 생각하드니 자기일줄만 바라보는 여러사람을 휘돌더보며

『작년에 마산금광으로 간 육조형 원식이가 돈을 잡엇다는 말을 드르쳣한데요 그말이 정말이라면 한번 차저가보죠』

『정? 그런뜻할도 드르쳣한데이런 농 에서는 한푼천이 웅새하지만 그런 금파린에서는 운만조흐면 몃천원은 눈결에 못는다는데!그러나 모아가지고잇다처도 어데 그럴 경황이 잇느냐!』

『될요……자전거로 갓다오면어룰이면 다녀올텐데요』

『그세에 다른곳에 팔니면? 하긴 멧출 기다려 달나고 부탁하면 돼겟지……』

어람을 듯고 잇든 방안사람들은 모다 그럴뜻하다고 찬성햇다. 그중에 류조시만은 이맛전에 자부치를 거더올리며 맛당치 안라는듯이 말한다.

『그건 다 느즈리운 소리들야! 지금세상에 망아리면 기를쓰고 살녀는판인데……벼씨 오놀처녀에라도 팔녓는지 누가아나!』

『그래도 우리들 쥴일만, 먹고잇다면 그러치도 안켓지요』

이번에는 장원사를 한것드든히 밋는 찬천이가 대답했다

載寧

白醫院 載寧邑文昌里六五 電話一二四番 醫師 白根學 女醫 吳玉蟾 五月一日開業 專門科目 小兒科、內科、產婦人科、入院室設備

載寧郡農會

載寧邑長 朴性宙

大成貿易社 社長 崔東鮮

鄭纘裕

安寧水利組合

祝 紙齡六千号 革新五周年

黃海道載寧邑 株式會社 載寧菊花釀酒場

新換浦金融組合 組合長 金元根

黃海道載寧邑 大東商會 電話一〇一番

載寧邑 海東醫院 院長 崔東益

載寧藝妓組合 電話一一〇番

載寧穀物協會

載寧警察署

載寧邑本町通 東星醫院 醫師 朴容圭 電話一三三番

古栗面職員一同

載寧文廟 直員 李炳根

載寧郡三江面 面職員一同

朝鮮黃海道載寧 鄭寅材木商會 電話二五番 振替京城二〇五二番

北栗面事務所

漢城商會

載寧殖產組合

載寧邑 協同組合

載寧稅務署 職員一同

載信水利組合

司法書士 崔善崗

東成商會

普成商會

載寧邑本町通 和信連鎖店 電話一二五番

載寧驛前 金石商會 電話二三番

朝鐵載寧自動車營業所

載寧菊花公立尋常小學校

慈山

慈山面仁興里 金桂灝

慈山面龍谷里 安永云

慈山面香峰里 李鍾國

慈山面香峰里 李根夏

慈山面慈老里 李萬華

平元線慈山驛前 慈山旅館 全旭鉉

順川郡慈山市 朴昌煥

平元線慈山驛前 慈山商店 主 吳壽根

金堤

全北

金堤郡廳職員一同

金堤郡各面職員一同

金堤郡各小學校職員一同

全北金堤邑本町 金萬自動車株式會社 安全自動車株式會社 電話 二八番 二二番 一四一番

全北金堤邑 木曜會 (イロハ順) 板橋勝 魯炅日 橋本央 千原陸三 趙東敏 鶴久半四郎 永井末太郎 長富彌作 緒方清 山田守房 松本英 近藤拾 澤田種治 貞弘久雄 水野精二郎 森川孝雄

全北金堤邑本町通 金堤綿布商組合 崔定根 鄭敬朝 朴基南 趙璡鍾 羅相豐 鄭春玉 姜健遠 申士玉 金萬重 杜洪錫 尹炳錫 金判石

全北金堤邑 金堤土曜會

全北金堤 東津水利組合 職員一同

全北金堤邑蓮洞里 鑛業家 趙仁幸

全北金堤 金堤邑事務所 邑長 澤田種治 副邑長 魯炅日

全北金堤邑玉山里 金城堂醫院 醫師 王貞煥 入院隨意

全北金堤邑校洞里 金駿治

湖南線金堤本町 吉南商會 主 朴基南 李鍾吉 婚具 雜貨 綢緞 綿布

全北金堤郡萬頃面火浦里 張錫鍾

全北金堤郡竹山面西浦里 鄭奇男

金堤郡金溝面上新里 張華圭

全北金堤邑 金堤商工會

全北金堤郡竹山面竹山里 丁平三

金堤郡竹山面竹山里 安日善

全北金堤邑本町三丁目 歐亞米商會 主 沈國局 發動機 農具一切 販賣修繕

甲種 朝鮮料理昭和舘 全北金堤邑校洞里 主 金大鉉

新築落成 設備完全

崔東烈

朴佑相

朴璿珪

天一釀造場 主 文正學

東部

朝鮮材木店 主 李允天 電話光化門(三)一〇六八、二九四七、三〇七二番 自宅 京城府東部出張所越便

京城府崇仁町一七一番地 秦漢得 電光一〇一八番

京城府安岩町一五七番地 開運寺宗務所 電光一六八七番

京城府敦岩町二三〇番地 金東吉醫院 電話光化門二〇二七番

京城府新堂町三三〇番地 模信商會 電本局五七六七番

京城府崇仁町一九九 兄弟酒店 電光三二〇四番

船橋里

淋疾特効藥은加味玉鎖丹 人蔘鹿茸 貼藥調製 唐材草材 乾材貿易 三星藥局 主 閔快植 平壤府船橋里 電話一三四二番

創立 東平壤飲食店組合

平壤府船橋里 崔億泰 電話九五七番

平壤府船橋里 大平鐵工所 電話一一九八番

金剛ゴム工業社

平壤府船橋里 東元硝子製造所 電話八八番

平壤運送株式會社 電話一〇二六番

平壤府船橋里 大同醫院 公醫 李泰鎭

平元ゴム工業社

平壤府新里一九八 東亞藥房 電話一九三 振替京城二六九四三番

平壤府船橋里 安聖民

平壤府新里 安八龍

外新里 申泰根

ペイント工事 船橋里商會

平壤府新里 高田藥房

德林洋服店

平安南道

木浦

木浦米穀取引所會員 森田商店期米部 木浦府榮町一丁目五番地 電話(代表番號)(四回線)二六〇〇番 取引所構內 長四〇七番、六一七番